

스포츠동아 창간 11주년



10

2019년 3월 22·23일 주말판

5인의 ‘스타 인싸’를 통해 본 ‘인싸의 세계’

다작왕 하정우 ‘인맥형’…친구부자 뷔 ‘관심형’

이제 ‘인싸’라는 말을 모르면 웬만한 대화에는 끼여들 수 없다. ‘인스타그램 스타’의 줄임말인가 싶어 네모난 검색어창을 두드린다면, 순간 당신은 ‘아싸’다. ‘인싸’는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가리킨다. 반대는 ‘아웃사이드(outsider)’의 ‘아싸’다. 연예계에도 뛰어난 친화력과 왕성한 호기심으로 ‘인싸’ 1열에 서 있는 스타들이 많다. 배우 하정우, 방탄소년단의 뷔, 워너원 출신 하성운, 동방신기 유노윤호, 개그우먼 박나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싸의 세계’ 안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을 통해 스스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인싸’가 될 수 있는지 재미삼아 점검해보자.

인싸력 테스트

1. ‘갑분싸’의 뜻을 알고 있다.
①안다. ②모른다.
2. ‘뽀시래기’는 ‘귀엽다’라는 뜻이다.
①맞다. ②아니다.
3. ‘JMT’의 뜻을 알고 있다.
①안다. ②모른다.
4. ‘P:π’를 보면 누가 떠오르나.
①방탄소년단 ②뽀롱?
5. ‘엄근진’의 의미를 알고 있다.
①안다. ②모른다.
6. =
7. 10
8. no2
9. 4= 4≠
10. ≠

10개 : 모두 맞힌 당신은 ‘핵인싸’
7~9개 : ‘인싸’임을 인정합니다.
4~6개 : 이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1~3개 : 아직은 ‘아싸’의 기운이...
0개 : 당신은 옛날 사람.

〈해설〉

1.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의 줄임말
2. 뽀시래기 : 부스리기처럼 작고 귀엽다는 의미
3. JMT : 매우 맛있다는 의미(존맛탱을 앞파벳으로, 매우 맛있다는 존맛에 탱을 붙인 말)
4. P:π : 방탄소년단 노래 제목인 ‘피(P) 땀(π) 눈물(π)’
5. 엄근진 : 엄격, 근엄, 진지를 합친 말
6. 취괴리 만한 월급
7. 집에 가고 싶다
8. 노이해
9.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10. 말갈지도 않은 소리



하 정 우



뷔



하 성 운



유 노 윤 호



박 나 래

별명 짓는 센스·끈끈한 의리

스치는 인연도 절친으로

달달한 애교로 누구든 녹여

열정남 결연 절친들 가득

그녀와 함께면 누구나 즐겁다

● ‘인맥형’ 하정우

배우 하정우는 ‘다작왕’답게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이정재, 마동석, 주지훈과 영화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 등이 모두 그의 절친들이다. 이런 우정은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정우의 별명 작명 센스로부터 시작한다. 김향기의 ‘김남새’, 김태리의 ‘태리야끼’, 이정재의 ‘염라스틴’(‘신과 함께’ 속 염라대왕 캐릭터에 삼푸 이름을 붙인 별명) 등이 대표적인 예다. 끈끈한 의리 또한 출중한 ‘인싸력’의 비결이다. 중앙대 동문으로 만나 데뷔작 ‘응서받지 못한 자’(2005)를 함께 한 윤종빈 감독과는 네 편의 영화를 함께 하기도 했다.

● ‘관심형’ 방탄소년단 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는 연예계 대표 ‘친구 부자’다. 뛰어난 사교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호기심으로 잠깐의 인연도 우정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팬들은 그런 뷔를 가리켜 ‘김스치면인연’이라 부르고 있다. KBS 2TV 드라마 ‘화랑’에서 호흡을 맞춘 연기자 박서준, 박형식과는 여행도 함께 가는 사이다. 또 한 명의 절친인 박보검과는 KBS 2TV ‘뮤직뱅크’ 출연 가수와 MC로 만나 절친이 됐다. 국적 불문 친화력도 자랑한다. 2017년 5월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만나 친구가 된 할리우드 배우 안젤 엘 고트와는 SNS로 서로를 응원하며 훈훈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 ‘애교형’ 하성운

그룹 워너원 출신 하성운은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자주 선보인 ‘모태 애교’로 상대방을 녹이는 ‘애교형 인싸’다. 그는 엑소 카이, 찬열, 방탄소년단 지민, 샤이니 태민, 빅스 라비 등과 사모임 ‘우정패딩즈’를 결성했다. 그 중 카이는 하성운이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할 당시 그를 꼭 뽑아 달라는 응원을 남기기도 했다. 라비를 위해 직접 노래 가드도 자청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빠져들도록 만든다. 덕분에 지난해 9월 ‘익사이팅디시’가 실시한 ‘핵인싸 갑 연예인은?’ 설문조사에서 15만2710표 중 7만5505표(49.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 ‘열정형’ 유노윤호

유노윤호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몰려 있다. 톱스타여서가 아니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의 인싸 세계를 닮고 싶어서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별레는 ‘대충’”이라는 말은 열정형 인싸들에게 삶의 지표와도 같다. 유노윤호는 평균 4시간 30분 잠을 자며 나른해지는 느낌 없이 두 끼만 먹는다. 대신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보낸다. 격렬하게 운동도 하고, 수동카메라로 아날로그 감성도 즐긴다. 시간을 쪼개 종교고 동창은 물론 군대 후임까지 행진다. 최근에는 ‘인싸춤’인 ‘오 나나나’ 댄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 ‘코믹형’ 박나래

박나래는 개그맨 본능으로 주위 시선을 집중시킨다. 빼어난 말솜씨로 ‘19금’ 멘트도 센스 있게 소화한다. 웃음을 위해서라면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몸을 내던지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다. 스스로 즐기며, 자신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즐겁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나래바’라는 공간까지 마련해 절친들과 수다와 술로 아침을 맞기도 한다. ‘아싸’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어렵다. ‘소생소사(笑生笑死)’이지만 웃음 없어도 여기저기 잘 어울린다. 클랩 디제잉도 하고 책도 쓰며 ‘인싸력’을 높이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계가 떨고있다

YG 특별 세무조사…칼 끝이 겨는 곳은 어디?

대규모 조직비리 조사 조사4국 투입
조사관 100여명 전 부서 자료 확보
한류사업 등 역외탈세 조사 가능성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의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연예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 여파가 연예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엔터테인먼트 본사와 관련 건물 등에 조사관들을 보내 재무와 회계 자

료를 등을 확보했다. 조사관들은 관련 부서는 물론 공연, 신인개발, 마케팅 등 YG 전 부서의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예계는 이를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로만 보기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YG가 이미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연예계는 보고 있다. 특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승리가 윤

영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사실상 양형석 YG 대표의 소유가 아니냐는 시선과 이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대규모 인력이 조사에 투입됐고 특히 그 담당 부서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진 상황이라서 클럽 관련 탈세 의혹 규명을 넘어서는 수준의 조사일 것으로 연예계는 보고 있다. 조사4국은 대기업 등 대규모 조직의 횡령과 탈세 등 비리와 의혹 등에 대해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100여명의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확보한 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뉴스

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도 전해져 이번 세무조사가 결국 YG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역외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YG 소속 한류스타 등 연예인들의 공연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조사라는 시선이다. 연예계는 이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YG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연예인들의 한류 관련 사업이 국내 연예계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일부 연예인과 기획사가 해외 사업 관련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당국에 적발된 적도 적잖았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만일 YG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이 같은 비리가 포착된다면 유사 행위에 대한 연예계 전반에 대한 또 다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